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가정환경과 유아의 학습행동과의 관계*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s, Home Environment, and Preschool Children's Learning Behaviors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석사 김경미
경희대학교 아동가족전공
부교수 안선희

Department of Child, Family & Housing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Master : Kyung Mi Kim
Major in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Sun Hee Ah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s, home environment, and preschool children's learning behaviors.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244 preschool children and their mothers in Seoul and GyeongGi-Do. The children's teachers rated the learning behaviors of each child whose mother returned our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general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productive correlation. Results showed that learning behaviors of preschool children were affected by their sex, age, and mother's education. In addition, there were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s, and learning behaviors of preschool children.

주제어(Key Words) : 양육효능감(parenting efficacy),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s), 가정환경(home environment), 학습행동(learning behaviors)

Corresponding Author : Sun Hee Ahn, Major in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9239 Fax: +82-2-961-0538 E-mail: shahn@khu.ac.kr

*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 일부임.

I. 서론

우리 사회가 개인의 능력보다는 학력을 중요시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부모들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너무 일찍 과도하게 선행학습이나 준비교육을 시키게 되어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겪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유아교육기관 또한 영어와 한글을 지도하고 여러 특기수업을 진행하느라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아동학자와 유아교육학자들은 많은 우려를 표명하며 유아기에 과도한 학습자극이나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지시적인 학습방법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의 그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업성적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여전히 조기 사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유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수행을 잘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진지하게 검토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학업성취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IQ를 꼽을 수 있다. 그동안 학령기 아동의 학업성취에서의 차이를 조사하는 연구에서 지능 변인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해 왔다(Brody, 2002; Grigorenko & Sternberg, 1997). 그러나 지능은 선천적이고 유전적이며 변화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교육효과라는 환경 변화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었다(Ceci, 1990; McDermott, Leigh, & Perry, 2002).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에 학령기의 학업성취를 예언해주는 유아들의 학습행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관심을 받고 있다. 학습행동은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동 혹은 접근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개선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업성취에서의 차이를 상당 부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한다(DiPerna & Elliott, 2002; McDermott, 1984). Barnett, Baner, Ehrhardt, Lents와 Stollar(1996)도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좋은 학습행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Green과 Francis(1988) 역시 학습행동이 유아의 현재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미래의 학업성취 수준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업성취를 예언하는데 지능 이상으로 기여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학령기 아동의 학습행동을 연구해오던 McDermott 등(2002)이 유아들의 학습행동을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유아들의 학습행동을 조사해왔다. 이들은 학습행동의 하위요소를 학습동기, 주의와 지속과 학습태도로 구성하였으며, 학습동기는 유아의 학습관련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흥미를 보이고 접근하는지를 평가하며, 주의와

지속은 유아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기술을 측정한다. 그리고 학습태도는 유아의 활동을 할 때 또래들과 협동하고 필요시에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내용이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긍정적인 학습행동은 사회적 유능성이나 적응, 심지어 인지발달을 포함한 다른 중요한 기능까지도 예측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McDermott, Green, Francis & Stott, 2000; Schaefer & McDermott, 1999). 그리고 중단 연구를 통하여 학습행동이 학령기 아동에서 장차 학업 실패의 위험과 정신병리 현상을 줄여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McDermott, 2000; McDermott, Chomat-Mooney, *et al.*, 2000; Yen, Konold, & McDermott, 2004).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고 학습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집중하며 또래와 교사에게 협조하는 등의 긍정적인 학습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은 학업성취 수준이 높고 이와 상반되는 학습행동을 보인 유아들은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학습과제에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는 유아들은 또래들과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적은 반면 학습활동을 하는데 주도적이 못한 유아들은 또래들 사이에서 위축되거나 고립되었다고 한다. 국내에서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저소득층 유아들의 학습행동을 조사한 정선교와 안선희(2006)의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놀이를 방해하며 놀이에 잘 참여하지 못하고 놀이 집단을 배회하거나 또래로부터 놀이 계의를 받았을 때 거절하는 놀이 단절 유형에 속하는 유아들의 경우 학습행동이 좋지 않았다. 즉 과제를 지속해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거나 활동에 대한 동기나 의욕이 부족한 유아들이 또래들과의 사회적 관계에도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아기의 학습행동을 조사한 연구들은 좋은 학습행동이 학교준비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습행동이 학령기에서처럼 유아들에게도 관찰이 가능하다고 강조함에 따라 유아기 때부터 바람직한 학습행동이 길러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람직한 학습행동이나 태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관련변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는 유아의 최초로 접하는 환경이 부모이고 유아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아의 어릴수록 부모와 자녀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의 연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온 주제는 양육행동으로 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

할 때 보여주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하며 유아의 지적, 사회 정서, 언어발달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행동과 사회성 발달을 조사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온정적이고 애정표현을 잘하며 자율성을 격려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친사회적이고 사교적이며 또래에게 잘 수용되고(권연희, 2003; 박주희, 이은혜, 2001), 유아의 행동에 적절한 한계를 정해주며 일관성있게 지도하는 부모의 행동은 유아의 책임감, 독립심, 주도성을 길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수현, 2004; 이은미, 2005).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독립성을 요구하는 태도를 취할수록 유아는 긍정적인 정서를 더 잘 표현하였으며(이혜련, 최보가, 2000), 정서지능이 높았고(안현지, 1999),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규제를 하는 경우 유아는 긍정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였다(임희수, 박성연, 2002). 게다가 부모의 반응적이고 민감한 태도는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건인 것으로 알려졌다(Wasik, Ramey, Bryant, & Sparling, 1990). 이와 같이 양육행동을 조사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온정적, 합리적, 수용적 등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나 태도를 가진 부모의 유아는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될 뿐 아니라 언어와 인지능력이 좋았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발달에 미치는 양육행동의 영향을 조사하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취학전 아동의 학습행동과 관련하여 조사된 바가 없다. 이는 유아의 학습행동에 대한 개념이 최근에 정립되었고 측정도구 또한 근래에 개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학습행동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바람직한 학습행동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양육행동 이외에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부모의 행동을 유도하는 인지적 변인을 들 수 있다. 부모의 인지적 변인은 주로 양육이나 교육에 관한 신념, 가치, 인식, 지식, 효능감 등으로서 90년대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부모의 인지체계는 행동을 중재하기 때문에 유아의 발달에 관한 부모의 신념이나 기대가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궁극적으로 유아의 발달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부모의 인지적 요소 중에 아동발달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는 양육효능감이다.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며 훈육하고 자녀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기대를 의미한다.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녀의 발달을 예언할 수 있는 변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수행된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자녀들의 긍정적인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부모로서 역할과 양육방법에 확신을 가지는

경우 자녀들은 감성지능이 발달하고 정서가 안정적으로 발달하였다(이승은, 서현, 2007). 또한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유아들의 사회적 능력이 높았으며(김현미, 도현심, 2004; 문태형, 2002), 유아의 인성 특성 중 안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향미, 2009). 이처럼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과 인성발달 등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는데 아동의 학습성취도를 예언해주는 학습행동과도 관련성이 있을지를 규명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의 인지체계나 행동 이외에도 아동의 발달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가정환경을 꼽을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가정의 물리적이고 심리적 환경이 아동의 여러 가지 특성을 결정짓는데 크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즉 가정 내의 조건, 상황, 자극이 어떠한가에 따라 유아의 성장과 발달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아들은 가정에서의 일상생활과 경험을 통해서 제공받는 환경 속에서 가치, 태도, 규범 등을 습득하고 적절한 기술과 행동 등을 학습하기 때문에 가정환경은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 실제로 가정환경과 아동발달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여러 선행연구들은 언어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을 풍부하게 해주며 놀이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주고 책을 많이 읽어주는 등의 가정환경 자극의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들의 학교준비도 점수도 높았다고 보고한다(조성연, 2002; 최지현, 김말경, 박혜원, 2008). 그리고 가정환경은 유아들의 유치원 적응(임말자, 최경순, 2003)과 언어발달(이지연, 곽금주, 2008), 정서지능(이선주, 2006)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가정환경이 주로 언어발달, 사회·정서발달, 학업성취도, 학교준비도와 관련지어 연구되어 왔으나 학업성취도를 예언해주는 학습행동과 연관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정환경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가정환경에서 제공받는 다양한 경험과 자극은 아동의 학습행동 수준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연구변인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아동의 행동 특성은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아동의 행동문제나 학교적응을 다루는 일련의 연구들을 보면 남아들이 초기 학교적응 문제를 더 많이 겪는 반면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학업성취도는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김선영, 안선희, 2006; 이진숙, 2004). 학습행동이나 학습관련 기술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학습관련 기술과 행동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송진숙, 권희경, 2007; 안선희, 권희경, 2005; 정선교, 안선희 2006). 이와 같이 학습관련 기술이나 학습행동에서 남녀 유아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소수의 연구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경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후속연구가 요청된다. 성별과는 달리, 유아

의 연령과 관련하여서는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즉 연령이 낮은 아동이 높은 아동에 비해 학습관련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연구(안선희, 권희경, 2005)와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는 연구(송진숙, 권희경, 2007)가 보고됨에 따라 유아의 연령에 따라 학습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습행동 즉, 주의집중해서 경청하고 자발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사려깊게 반응할 뿐 아니라 잘못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는 특성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태도와 행동이 형성되는데 필요한 환경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본 연구는 아동이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는 부모변인 즉,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가정환경이 학습행동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변인 중에 어떤 요인이 학습행동과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이를 통해 과도한 조기 교육으로 발달수준에 맞지 않는 학습을 강요하여 유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모들에게 취학전 준비교육으로 학습행동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바람직한 학습행동이 형성되기 위한 자녀양육과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가정환경과 유아의 학습행동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가정환경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학습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넷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가정환경과 유아의 학습행동은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7개의 어린이집과 2개의 유치원에 다니는 만 4~5세 유아 244명과 그들의 어머니였다. 연구대상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보육기관은 중류층 지역에 소재하고 기관의 규모나 크기가 가능한 유사한 곳으로 표집하였다. 자료를 수집한 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유형에 따른 연구변인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나타나 두 기관이 서로 동질적임이 확인되었다(표 1).

연구에 포함된 유아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만 4세 유아 102명(41.8%), 만 5세 유아 142명(58.2%)으로 만 5세 유아가 만 4세 유아보다 조금 더 많았다. 성별의 경우, 남아가 125명(51.2%), 여아가 119명(48.8%)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조금 많았다. 어머니들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만 25세~32세가 56명(23%), 만 33세~37세는 122명(50%), 만 38세~52세는 66명(27%)으로 33세~37세의 어머니가 가장 많았다. 학력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54.1%, 전문대졸이 16.8%, 대졸 이상은 29.1%이었다. 그리고 취업모가 45.5%, 비취업모가 54.5%로, 비취업모가 약간 더 많았다.

2. 연구도구

1) 어머니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Giban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를 신숙재(1997)가 수정·변안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 역할에서의 유능감이나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로서의 문제 해결 기술과 능력에 대한 어머니 자신의 기대를 측정한다. 양육효능감 척도는 총 16개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효능감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신뢰도는 .80이었다.

2) 어머니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 평가 도구는 Crase와 그의 동료들(1987)의 아이오아 부모 양육행동 척도(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other Form)를 홍계옥(1994)이 번안·수정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양육행동 척도는 총 26문항으로, 합리적인 지도, 한계설정, 애정성, 반응성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별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양육행동 총점에 대한 신뢰도는 .81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 보면, 합리적 지도가 .82, 한계설정이 .68, 애정성이 .73, 반응성이 .75로 나타났다.

3) 가정환경

유아의 가정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Bradley와 Caldwell(1984)의 유아용 가정환경검사(Home Observation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를 이주리(1994)가 우리나라 문화권에 맞게 질문지형으로 개발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주리가 개발한 도구는 6개 하위영역으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자극, 사회적 성숙/축진, 물리적 환경, 경험의 다양성의 4개의 하위요인만 사용하였다. 응답은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영역에 대한 행동의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가정환경 총점의 신뢰도는 .80이었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

는 언어적 자극이 .63, 사회적 성숙/축진이 .70, 물리적 환경이 .78, 경험의 다양성이 .67이었다.

4) 학습행동

유아의 학습행동은 McDermott, Green *et al.*(2000)가 개발한 Preschool Behaviors Learning Scale을 정선교(2005)가 사용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학습행동은 총 24문항으로, 학습동기(competence motivation), 주의와 지속(attention/persistence), 학습태도(attitude toward learning)의 총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동기는 학습활동에 관한 호기심과 학습활동을 이해하고 성공하려는 동기를 말한다(예: 활동을 하는데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주의와 지속은 활동을 하는데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과 어려운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행동 등을 평가한다(예: 쉽게 산만해지거나 집중하지 못한다). 학습태도는 활동을 하는 동안 또래나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평가한다(예: 교사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응답 방식은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측정도구의 문항 전체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영역의 행동이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학습행동 총점의 신뢰도는 .94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학습동기가 .90, 주의와 지속이 .92, 학습태도가 .78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먼저 유아교육기관에 전화를 하여 원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얻었다. 설문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고 교사들에게 설문지 내용을 설명하였다. 어머니용 설문지는 가정통신문과 함께 유아 편으로 가정에 보내어져 어머니들이 응답하도록 한 후 유아를 통해 다시 담임교사가 회수하였다. 유아의 학습행동은 연구대상의 유아와 5개월 이상 함께 생활한 담임교사가 평소의 생활을 기초로 하여 평정하도록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측정 문항의 응답에 오류가 있는 질문지를 제외시켜 총 244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각 변인에 대한 빈도 및 표준편차, 퍼센트의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가정환경의 총점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연구문제에 따라 *t* 검증, *F*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는 Scheffé 방법으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가정환경과 유아의 학습행동에 관한 전반적 경향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가정환경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양육효능감의 평균은 3.25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써,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평균이 3.82로써 양육행동이 비교적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합리적 지도의 평균이 3.99(*SD* = .48), 한계설정 3.83(*SD* = .75), 애정성은 3.46(*SD* = .52), 반응성은 4.10(*SD* = .58)으로 반응성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애정성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가정환경의 전체 평균은 3.05로써 보통수준에 해당되며 하위요인 중에 물리적 환경의 평균이 3.40으로 가장 높은 반면 경험의 다양성의 평균은 가장 낮았다.

유아의 학습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표 1>. 학습행동의 평균은 2.00(*SD* = .52)으로, 평가 범위가 1~4점인 것을 고려할 때 연구대상 유아들의 학습행동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위요인들의 평균을 보면, 학습동기 평균은 1.97(*SD* = .57), 주

<표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가정환경의 일반적 경향

변인	전체 (n = 244)	어린이집 (n = 173)	유치원 (n = 71)	t	
	M(SD)	M(SD)	M(SD)		
양육효능감	3.25(.48)	3.22(.43)	3.33(.59)	-1.31	
양육행동	합리적 지도	3.99(.48)	3.95(.47)	4.10(.50)	- .58
	한계설정	3.83(.75)	3.82(.55)	3.87(1.1)	- .47
	애정성	3.46(.52)	3.45(.52)	3.48(.56)	- .31
	반응성	4.10(.58)	4.09(.55)	4.14(.66)	- .62
	총점	3.82(.40)	3.80(.37)	3.85(.47)	-1.44
가정환경	언어적 자극	3.24(.49)	3.20(.48)	3.25(.52)	- .88
	사회적 성숙 및 축진	3.44(.44)	3.34(.42)	3.26(.50)	1.28
	물리적 환경	3.40(.55)	3.39(.53)	3.43(.61)	- .57
	경험의 다양성	2.80(.48)	2.82(.40)	2.76(.47)	.82
	총점	3.05(.36)	3.24(.35)	3.25(.35)	- .81
학습행동 ^a	학습동기	1.97(.57)	1.98(.60)	1.95(.53)	.33
	주의집중/지속	2.06(.62)	2.06(.65)	2.07(.55)	- .16
	학습태도	1.96(.54)	1.95(.54)	1.99(.53)	- .60
	총점	2.00(.52)	1.99(.56)	2.00(.42)	- .08

^a학습행동은 평균이 높을수록 부정적임

의와 지속 평균은 2.06($SD = .62$), 학습태도 평균은 1.96($SD = .54$)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가정환경과 유아의 학습행동의 차이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고졸, 전문대졸, 대졸로 구분하여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가정환경과 유아의 학습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F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표 2). 분석결과, 어머니의 학력 수준에 따른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가정환경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유아의 학습행동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 = 5.78, p < .01$). 추후검증을 통해 알아 본 집단 간의 차이는 고졸학력의 어머니들과 전문대졸 및 대졸학력의 어머니들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즉 전문대졸이상의 어머니의 유아들은 고졸학력의 어머니의 유아들보다 학습행동의 평가 점수가 높았다.

〈표 2〉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유아의 학습행동

	교육수준	빈도	M	SD	F	Scheffé
학습동기	고졸	132	2.07	.59	4.86*	b
	전문대졸	41	1.80	.52		a
	대졸이상	71	1.89	.55		a
주의와 지속	고졸	132	2.19	.63	7.82*	b
	전문대졸	41	1.78	.58		a
	대졸이상	71	1.99	.56		a
학습태도	고졸	132	2.02	.51	1.92	
	전문대졸	41	1.91	.70		
	대졸이상	71	1.88	.47		
총점 ^a	고졸	132	2.10	.54	5.78*	b
	전문대졸	41	1.82	.50		a
	대졸이상	71	1.92	.48		a

^a학습행동은 평균이 높을수록 부정적임
* $p < .05$.

〈표 3〉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가정환경

가정환경	취업모($n = 111$)		비취업모($n = 133$)		t
	M	SD	M	SD	
언어적 자극	6.38	1.00	6.48	.96	- .81
사회적 성숙	13.07	1.86	13.44	1.70	-1.59
물리적 환경	19.77	3.36	21.01	3.17	-2.95*
경험의 다양성	8.39	1.46	8.43	1.48	- .22
총점	47.81	5.17	49.35	5.40	-2.26*

* $p < .05$.

다음으로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가정환경과 유아의 학습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환경 변인을 제외한 다른 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가정환경 변인에서는 취업모들과 비취업모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t = -2.93, p < .05$), 취업모들의 가정환경의 평균($M = 2.99, SD = .32$)보다 비취업모들($M = 3.09, SD = .30$)의 평균이 높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한 비취업모들은 취업모들보다 자녀에게 보다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학습행동의 차이

유아의 연령에 따라 학습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4).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만 4세 유아들의 학습행동 평균은 2.08($SD = .49$), 만 5세 유아들의 평균이 1.94($SD = .55$)로 나타났다. 만 5세 유아들보다 만 4세 유아들의 학습행동 평균이 높았으며 두 연령 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t = 2.05, p < .05$). 학습행동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므로 만 5세 유아들이 만 4세 유아들보다 긍정적인 학습행동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학습행동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만 4세의 학습동기의 평균은 2.08($SD = .56$), 만 5세의 학습동기 평균은 1.90($SD = .59$)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2.37, p < .05$). 만 4세의 주의와 지속의 평균은 2.15($SD = .60$), 만 5세의 주의와 지속의 평균은 2.00($SD = .63$)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1.92, p < .10$). 그러나 연령에 따른 학습태도의 하위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학습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남아의 학습행동 평균은 2.12($SD = .51$), 여아의 학습행동 평균은 1.88($SD = .51$)로 남아가 여아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 = 3.70, p < .001$). 이를 통해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학습행동이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습행동의 하위요인에 따라서는 남아의 학습동기 평균은 2.06($SD = .57$), 여아의 학습동기 평균은 1.87($SD = .56$)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2.71, p < .05$). 남아의 주의와 지속 평균은 2.21($SD = .59$), 여아의 주의와 지속 평균은 1.90($SD = .60$)이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4.08, p < .001$). 남아의 학습태도 평균은 2.07($SD = .51$), 여아의 학습태도 평균은 1.88($SD = .5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3.29, p < .01$).

〈표 4〉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학습행동

학습행동	만4세 (n=102)	만 5세 (n=142)	t	남아 (n=125)	여아 (n=119)	t
	M(SD)	M(SD)		M(SD)	M(SD)	
학습동기	2.08(.56)	1.90(.59)	2.37*	2.06(.57)	1.87(.56)	2.71*
주의와 지속	2.15(.60)	2.00(.63)	1.92+	2.21(.59)	1.90(.60)	4.08***
학습태도	2.00(.45)	1.94(.60)	.95	2.07(.51)	1.84(.54)	3.29**
총점 ^a	2.08(.49)	1.94(.55)	2.05*	2.12(.51)	1.88(.51)	3.70***

^a학습행동은 평균이 높을수록 부정적임

+p < .10. *p < .05. ***p < .001.

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가정환경과 유아의 학습행동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가정환경이 유아의 학습행동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분석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학습행동($r = -13, p < .05$)과 관련이 있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학습태도를 제외한 학습동기($r = -11, p < .10$), 주의와 지속($r = -13, p < .05$)와 관련이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한 유아의 학습행동($r = -13, p < .05$)과 상관이 있었고 하위요인별로는 학습동기를 제외한 주의와 지속($r = -13, p < .05$) 및 학습태도($r = -12, p < .10$)와 관련이 나타났다. 양육행동의 하위요인과 학습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학습행동은 합리적 지도($r = -12, p < .10$)와 한계설정($r = -16, p < .05$)과 관련이 있었으며 애정성과 반응성과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가정환경은 하위요인 중 사회적 성숙($r = -14, p < .05$)하고만 상관이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가정환경이 유아의 학습행동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

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어머니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가정환경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은 보통수준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나타나 비교적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양육행동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육행동의 여러 하위요소 중에 특히 반응성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애정성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애정성의 평균이 다른 요인에 비해 낮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았다. 애정성은 크게 자녀의 활동과 놀이에의 참여와 친밀성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애정표현을 알아보는 문항들의 평균은 높았으나 자녀의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문항들의 평균은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자녀가 요구하거나 필요할 때 즉각적인 반응을 많이 해주는 편이나 자녀와 놀이를 함께 하는 등 자녀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다소 미흡함을 알 수 있다.

가정환경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발달을 돕기 위해 적절한 자극을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녀를 칭찬하고 신체적인 벌을 사용하지 않으므로써 언어발달을 돕기 위해 긍정

〈표 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가정환경과 유아의 학습행동간의 관계

	양육 효능감	양육행동				가정환경					
		합리적 지도	한계설정	애정성	반응성	총점	언어적 자극	사회적 성숙	물리적 환경	주거환경	총점
학습동기	-.11 ⁺	-.08	-.15*	-.07	.03	-.11	-.03	-.10	-.04	-.02	-.08
주의와지속	-.13*	-.13*	-.15*	-.09	.04	-.13*	-.09	-.14*	-.08	-.04	-.12
학습태도	-.11	-.14*	-.10	-.08	.00	-.12 ⁺	-.01	-.03	-.04	.20	.02
총점 ^a	-.13*	-.12 ⁺	-.16*	-.09	.03	-.13*	-.05	-.10	-.04	-.02	-.08

^a 학습행동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임

+p < .10. *p < .05.

적인 지지를 해주며 사회적 성숙을 촉진하고, 자녀의 발달을 돕는 놀잇감이나 교구교재를 구입하여 물리적 환경을 갖추는 활동은 비교적 자주 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자녀와 함께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 등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정도는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어머니의 학력수준 및 직업유무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가정환경과 유아의 학습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른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가정환경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유아의 학습행동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 및 대졸이상인 유아들과 고졸인 유아들의 학습행동은 차이가 있었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유아들이 학습행동 평가에서 교사들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장혜진(2007)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학습활동에 관심이 많고 바람직한 학습행동에 대한 지식수준도 높을 것이다. 그래서 유아가 활동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바람직한 태도나 기술들을 격려하며 강화하고, 부적절한 학습행동을 보일 때는 올바르게 코칭함으로써 좋은 학습행동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한편,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자신들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가정환경의 수준이 무관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 수준이 높고 양육행동이 바람직하다는 선행연구들(문혁준, 1999; 서소정, 2004)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경우, 학력수준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양육효능감이나 행동이 실제로 유사할 수 있으나 자기보고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실제 행동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직접 관찰에 의해 어머니의 자료를 수집하지 않은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된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관련하여,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에서는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정환경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비취업모들이 취업모들에 비해 가정환경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하위요인에서는 특히 물리적 환경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로부터 자녀들의 교육적인 자료를 구입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어 비취업모들이 취업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취업모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다보니 시간이 부족하고 심리적인 여유가 없어서 놀잇감이나 교육용품 등을 자주 구입해주는 물리적 환경에 대해 세심한 신경을 쓰지 못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육아와 가사에만 전념하는 비취업모들은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나

혹은 자녀의 친구 엄마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교육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취업모와 차이를 보인 것으로 추론된다.

셋째, 유아의 학습행동의 평균을 살펴볼 때 유아들은 비교적 학습행동이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학습태도와 학습동기의 평균은 거의 유사하였으며 주의집중 및 지속의 평균이 두 하위요인보다 조금 더 높았다. 학습행동의 전체 평균을 정선교와 안선희의 연구(2006)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의 학습행동이 약간 더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선교와 안선희의 연구(2006)에서는 연구대상을 보육료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들로 한정하였고 본 연구의 대상은 일반 유아들이었으므로 평균차이는 표집의 차이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학습행동을 분석한 결과, 만 4세와 5세 유아와 남녀 유아에 따라 학습행동은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만 5세 유아들이 만 4세 유아들보다 학습행동의 평가점수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의분산이 적었으며 집중력이 높고, 질문에 대한 응답에도 주저하는 경우가 적었다는 Schaefer(2004), McDermott 등(2002), Childs와 McKay(2001)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저소득층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선교와 안선희(2006)의 연구 결과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학습행동이 부정적이었다. 학업수행을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변인인 학습관련기술에서도 만 5세 유아들이 만 4세 유아들보다 또래들과 더 잘 협력하여 과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더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알며 과제나 활동을 할 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선희, 권희경, 2005). 이와 같은 결과들을 기초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아들의 학습행동이나 기술이 자연스럽게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기술이 좋아지며 정서조절능력이 발달하고 언어와 인지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으로 추측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연구결과들은 횡단설계에 의해 수집한 자료이므로 연령 증가에 따른 개인내의 변화가 아니라 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유아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학습행동을 구성하는 학습동기, 주의와 지속, 학습태도 모두에서 점수가 높아 여아들의 학습행동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남아들이 교실활동에서 흥미수준이 낮고 주의집중과 활동에 대한 집착력이 낮으며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특성을 보인다는 Schaefer(2004)와 정선교와 안선희(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학습행동과 유사한 개념인 학습관련기술을 조사한

여러 연구들 역시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학습관련기술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송진숙, 권희경, 2007; 안선희, 권희경, 2005). 그리고 아동의 행동문제나 학교적응을 다루는 연구에서도 남아들이 여아들에 비해 초기 학교적응 문제를 더 많이 겪고 학업성취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영, 안선희, 2006; 이진숙, 2004). 이와 같이 학업수행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조사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유아기의 학습행동이나 학습기술에서 이미 남녀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외고합격률이나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합격률 등에서 여자들의 우위현상은 아마도 여자들의 우수한 학습행동이나 기술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를 조사한 외국의 선행연구도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학업성취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보고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연구자들은 남아들의 부정적인 학습행동에 기인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Eccles, Eccles, Wigfield, Harnold, & Blumenfeld, 1993; McDermott, 1995). 이처럼 여아가 남아에 비해 학습행동이나 기술이 더 좋은 것은 여아가 더 빨리 성숙하고 구조화된 환경에 적응이 빠를 뿐 아니라 성인의 지시에 더 잘 순응하는 생물학적인 차이 때문일 수 있다. 그런데 학습행동이 현재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미래의 학업성취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임을 고려한다면 남아들이 학업수행에서 지속적이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학습행동이 좋지 못한 유아기의 남아들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처치를 하여 학습행동을 개선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가정환경이 유아의 학습행동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은 유아의 학습행동과 비록 상관계수는 다소 낮았으나 서로 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한대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고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유아의 학습행동은 바람직하였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유아의 학습행동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은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들의 자녀들이 대체로 발달수준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부모역할 수행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상호작용을 잘하는 등 양육행동도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의 관련성은 본 연구 뿐 아니라 이미 다른 연구들(문혁준, 2005; 서기남, 문혁준, 2008; 우희정, 이숙, 1994)에 의해서도 입증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유아의

학습행동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육자가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많은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어머니가 자녀에게 수용할 수 있는 행동과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을 제시하고 그것의 이유를 설명하는 합리적 지도 수준이 높을수록 주의를 집중시키는 기술이 높고 학습활동에서 또래와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인 학습태도가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의 생활에 제한을 정하고 그 제한을 엄격하게 실행하는 한계설정 능력이 높을수록 유아는 활동을 하는 동안 주의집중을 잘하며 학습활동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학습활동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는 동기가 높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초등학생의 학습태도가 좋았다는 이주현(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그리고 Webster-Stratton과 Herbert(1994)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그러나 자녀와 함께 놀아주며 신체적인 애정이나 친밀성을 표현하는 애정행동이나 자녀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반응성은 학습행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녀와 함께 놀아주며 신체적인 애정이나 친밀성을 표현하는 어머니의 애정행동이나 자녀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반응성 행동보다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엄격하게 실행에 옮기는 양육행동이 바람직한 학습행동 형성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정환경 변인에서는 사회적 성숙의 하위요인을 제외하고는 학습행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제공하는 자극 수준에 따라 아동발달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이지연, 박금주, 2008; 조성연, 2002; 최지현 외, 2008)를 지지해 주지 못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인 것은 선행연구에서 조사한 언어능력이나 어휘, 수 등의 개념 발달과는 달리 학습행동이 가정환경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환경 척도가 개인 간의 차이를 세심하게 측정해 낼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지 않았거나 연구대상의 차이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아동의 언어발달, 정서, 학습준비도 등을 조사한 선행연구결과와 학습행동을 조사한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가정환경을 민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뢰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가정환경과 학습행동과의 관련성을 재검증해 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학습행동과의 관련성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와 유아교사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IQ에 비해 학습행동은 개선이 가능하고 개입을 쉽

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교육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McDermott, 1999). 즉 취학 전에 유아들에게 문자교육과 수 교육을 시키기 보다는 먼저 좋은 학습행동이 형성되도록 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학습행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부모들이 적절한 양육지식을 습득하여 양육자신감을 높이며, 긍정적인 양육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프로그램은 인지기술 뿐 아니라 학습태도나 학습동기 측면에도 초점을 두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유아교사들은 학습행동이 좋지 못한 유아들을 조기에 선별하여 교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한다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거나 양육효능감이 높고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학령기의 학업성취도를 예언해 주는 것으로 알려진 학습행동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연령이 낮은 유아들보다 높은 유아들의 학습행동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와 같은 결론은 부모가 제공하는 양육환경이 좋을수록 유아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형성된다는 보편적인 이론을 지지해준다. 학습행동은 공식교육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미 유아기에서 개인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취학 전에 바람직한 학습행동을 기를 수 있도록 부모들과 유아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앞으로 취학전 유아들의 학습행동 수준과 학업성취가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습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가족환경 변인들을 포함시켜 유아의 학습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는 연구설계도 요청된다.

■ 참고문헌

권연희(2003).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해결전략 및 어머니의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선영, 안선희(2006).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 초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183-197.

김현미, 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문태형(2002). 어머니의 사고양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49-63.

문혁준(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문혁준(2005). 취학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6(5), 139-149.

문혁준(2008). 부모-자녀 관련 국내학술지 논문의 연구동향. **아동학회지**, 29(2), 15-31.

박수현(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유능성.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주희, 이은혜(2001).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아동학회지**, 22(4), 1-15.

서기남, 문혁준(2008). 발달적으로 적합한 실제(DAP)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과 아동기 양육경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9(3), 23-40.

서소정(2004). 양육효능감: 자녀양육행동 매개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4), 11-27.

송진숙, 권희경(2007).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을 예언하는 부모양육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535-544.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안선희, 권희경(2005).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 문식성 발달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6(4), 173-188.

안현지(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우희정, 이숙(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15(1), 71-90.

이선주(2006).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가정환경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승은, 서 현(2007).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감성지능과의관계. **아동학회지**, 28(4), 127-144.

이은미(2005). 유아의 리더쉽과 부모양육태도 관계 분석.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주리(1994).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환경과 역량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주현(2004). 과외학습과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스트레스, 학습태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지연, 광금주(2008). 아동초기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51-165.

- 이진숙(2004). 취학전 시기의 모-자녀관계, 교사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초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4), 333-357.
- 이혜련, 최보가(2000). 유아의 개인 및 부모특성과 정서이해와 정서조절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5), 1-14.
- 임말자, 최경순(2003). 유아의 성·연령·기질 및 가정환경 자극과 유아교육기관 적응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2(1), 189-207.
- 임희수, 박성연(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장혜진(2007). 농촌아동의 가정환경자극과 성취동기 및 학교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선교, 안선희(2006). 보육시설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의 또래놀이 행동과 학습행동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4), 217-236.
- 전향미(2009).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 유아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성연(2002).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가정환경과 성격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4), 103-111.
- 최지현, 김말경, 박혜원(2008). 가정환경, 개인특성, 학습준비도간의 관계. 2008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00-101.
- 홍계옥(1994).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 애착 행동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Barnett, D. W., Bauer, A. M., Ehrhardt, K. E., Lents, F. E., & Stollar, S. A.(1996). Keystone targets for changes: Planning for widespread positive consequence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1, 95-117.
- Bradley, R., & Caldwell, B.(1984). The relation of infants' home environments to achievement test performance in the first grade: A follow-up study. *Child Development*, 55, 803-809.
- Brody, N.(2002). g and the one-many problems: Is one enough: The nature of intelligence. *Novartis Foundation Symposium*, vol 233(pp. 122-135). NY: Wiley.
- Ceci, S. J.(1990). *On intelligence.... more or less: A bio-ecological treatise on intellectu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Childs, G., & McKay, M.(2001). Boys starting school disadvantaged: Implications from teachers' ratings of behaviour and achievement in the first two year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 303-314.
- Cruse, S. P., Clark, S. G., & Pease, D.(1987).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 Manual*. Ames, IA: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 DiPerna, J. C., & Elliott, S. N.(2002). Promoting academic enablers to improve student achievement: An introduction to the mini-series. *School Psychology Reviews*, 31, 293-297.
- Eccles, J., Wigfield, A., Harnold, R. D., & Blumenfeld, P.(1993).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children's self and task perceptions during elementary school. *Child Development*, 64, 830-847.
- Giban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August).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Green, L., & Francis, J.(1988). Children's learning skills at the infant and junior stages: A follow-on study.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8,120-126.
- Grigorenko, E. L., & Sternberg, R. J.(1997). Styles of learning abilities and academic performance. *Exceptional Children*, 63, 295-312.
- McDermott, P. A.(1984). Comparative functions of preschool learning style and IQ in predicting future academic performance.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9, 38-47.
- McDermott, P. A.(1995). Sex, race, class and other demographics a sexplanations for children's ability and adjustment: A national appraisal.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3, 75-91.
- McDermott, P. A., Chomat-Mooney, L. I., Grim, S. M., Menaker, M. R., Mordell, M., Tighe, E. A., et al.(2000, June). *A nationwide typology of child and adolescent classroom learning patterns*. CE credit symposium conduc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Pennsylvania Psychological Association, Harrisburg, PA.
- McDermott, P. A., Green, L. F., Francis, J. M., & Stott, D. H.(2000). *Preschool learning behaviors scales*. Philadelphia, PA: Edumetric and Clinical

Science.

- McDermott, P. A., Leigh, N. M., & Perry, M. A.(200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reschool learning behaviors scale. *Psychology in the Schools*, 39, 353-365.
- Schaefer, B. A.(2004). A Demographic survey of learning behaviors among American students. *School Psychology Review*, 33(4), 481-496.
- Schaefer, B. A., & McDermott, P. A.(1999). Learning behavior and intelligence as explanations for children's scholastic achieve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7, 299-313.
- Wasik, B. H., Ramey, C. T., Bryant, D. M., & Sparling, J.(1990). A longitudinal study of two early

intervention strategies: Project CARE. *Child Development*, 61, 1682-1696.

- Webster-Stratton, C., & Herbert, M.(1994). *Troubled families-problem children: Working with parents: A collaborative process*. Chichester, England: John Wiley & Sons.
- Yen, C. J., Konold, T. R., & McDermott, P. A.(2004). Does learning behavior augment cognitive ability as an indicator of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2, 157-169.

접 수 일 : 2009년 7월 30일

심사시작일 : 2009년 8월 6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0월 14일